

80年代의 石油事情, 어떻게 될 것인가

— 低油價時代와 OPEC의 앞날

閔 泰 植

〈韓國石油開發公社·電算課長〉

概要

歴史的으로 볼 때 石油은 世界經濟發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1950년대부터 60년대에 걸쳐서는 石油의 供給量이 계속 증가하고 實質的인 價格이 저렴했기 때문에 世界의 經濟成長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3년부터 1981년 중반에 걸쳐서는 60년대의 그러한 현상과는 달리 石油을 둘러싸고 세계각국이 각축전의 회오리바람에 휩싸이게 되는 양상으로 돌변하게 되었다.

이 기간동안 石油價格의 暴騰은 戰後세계경제의 2大不況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타격을 주어 거의 10년이라는 低成長時代를 초래시킨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세계경제의 低成長時代는 石油價格이 OPEC의 카르텔에 의한 것이든, 자유시장경쟁시세에 의한 것이든 어느 정도 필연적으로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은 자원의 有限性 내지 자원의 한계성을 전제로 이룩된 시스템이 고도성장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960년부터 1973년까지의 연평균 5.5% 라는 세계경제 신장율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그 이상 더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戰後 世界經濟가 好況을 누리던 말기에 出現한 OPEC를 도외시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새로운 經濟環境속에서의 OPEC

그렇다면 OPEC가 스스로 새로운 경제환경 創出에 큰 역할을 했던 그 환경속에서 어떻게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1981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제1차 석유파동이후 8년동안 OPEC의 油價가 얼마나 치솟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석유소비국들에게 있어서는 OPEC의 석유값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다. 불과 2년전만 하더라도 1980년대 중반까지 얼마만큼 석유부족현상이 재연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걱정이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우려가 자취를 감추는 한편, OPEC石油에 대한 需要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 생산수준을 수백만 배럴이나 하회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생산수준과의 비교에서는 더욱 이것을 하회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과연 OPEC가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카르텔로서 계속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게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다.

올해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석유의 實質價格이 하락될 것이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名目價格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와 명목가격이 인하될 경우, OPEC는 價格을 다시

引下調整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시장의 實勢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될 것인가, 그럴 경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予想뒤엎은 과거의 油價暴騰

OPEC에 의한 제 2 차 석유위기가 시작된 이래, 세계의 석유시장변동상황을 살펴보는 뜻에서 1976년 6 월 하순 東京에서 열린 先進 7 國 頂上 會談(東京 Summit)에서 채택된 1985년의 석유수입 상한선을 염두에 두고 이들 목표에 입각해서 현재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石油輸入量 (단위 : 100만 B/D)

연도	1978	1981	1982(상반기)	동경서미트 1985년목표
E E C	9.5	7.1	6.8	9.5
미 국	8.2	5.6	4.2	8.5
캐 나 다	6.7	0.6	0.4	0.6
일 본	5.1	4.5	4.3	6.3~6.9

※ 각국의 숫자는 총수입량
(資料 : OECD의 "Quarterly Oil Statistics")

위에서 보면, 어느 나라의 경우도 1982년 상반기의 수입 실적은 각각 1985년 목표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금년도 석유수입량은 다소 상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1982년도의 이례적인 비축물량 방출이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5년의 주요 석유소비국의 석유 수입량은 대체로 1978년 시점의 실적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東京서미트 개최시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예기치 못했던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는 배럴당 20달러 정도였던 OPEC의 평균석유값이 1981년 1월에 와서 배럴당 35달러 상당 수준까지 오른다는 예상도 하지 못했다.

더구나 석유값의 폭등으로 선진공업국들이 3년이상이나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현상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최근, 세계석유소비량이 크게 줄고, OPEC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유럽제국 혹은 개발도상국들은 아직도 1979~80년의 악몽과도 같은 석유가앙등의 영향을 전면적으로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實質價格은 1979년의 20달러 수준으로

OPEC諸國의 각료중에는 원유의 현재 달러貨 基準의 名目輸出價格이 1985년까지 큰 변화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見解가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1985년 OPEC의 實質價格(1979년 달러貨 換算)은 OECD의 예상인플레이세에 따를 때 1979년 중반의 20달러수준은 약간 상회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대부분의 석유수입국들은 活路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2~3년동안에 석유값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다만 달러貨의 名目價格에 의한 凍結쪽이 약 2년전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80년대 전반에서의 OPEC의 실질가격인상 가능성보다 더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 볼 때, 현재의 상황은 아직 일반적으로 널리 믿고 있는 것처럼 1973년에 시작된 석유실질가격의 급등현상이 잠시 중단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는 잘못이라는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는 1970년대와 비교할 때 전혀 편이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두 차례에 걸친 OPEC에 의한 석유파동으로 말미암아 석유수요에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시켰고, 공업생산의 제품구성에도 고도의 기술혁신과 에너지절약형 산업에의 이행을 진전시킨 것이 70년대라고 한다면, 앞으로 80년대 말까지의 기간동안 OPEC가 기술적으로 유지가능하다고 보는 생산능력에 접근할 때까지 OPEC석유의 수요증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 앞으로 1990년까지 이르는 동안 세계의 석유수요가 다소 신장세를 보일 것이고, 이에 따라 OPEC 석유의 수요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으나, 그렇더라도 수요가 OPEC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1990년까지는 석유시장의 수급관계에 따라서 실질가격 상승의 압력이 가해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또한 이러한 시장에서의 뒷받침 없이는 1985~1990

년 사이에 석유의 실질가격이 대폭 인상 될 수 있는 어떤 변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적어도 앞으로 8~9년 동안은 석유를 세계경제의 잠재적인 不安定要因으로서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물론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아니다」라고 답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앞으로의 석유가격에 대해서는 피차 정반대의 방향을 취한 잠재적인 두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페르샤만 연안 지역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런 요인이 다시 석유의 공급을 물리적으로 중단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겠고,

둘째는 OPEC의 조직적, 정치적 불안정성에서 유래되는 위협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세계의 석유가격에 대한 OPEC의 관리능력을 상실케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일시적이라도 급격하게 가격하락을 초래시킬 것이다.

이와같은 예측불허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1982년의 경우를 보면, 페르샤만 연안제국의 석유생산량은 非共産圈 世界 石油生産量の 30%에 달하고 있으며, 더욱 이 나라들은 약 50%가까이까지 공급할 만한 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이 페르샤만 제국에서 생산되는 석유는 대부분 수출용이기 때문에 세계의 석유수입국들은 이 지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페르샤만 연안지역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지역이다.

石油輸入国の 備蓄効果

현재 세계의 석유는 남아돌아가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이외의 어느 중동산유국에서의 수출이 중단될 경우 여타 OPEC산유국들이 증산하여 충족시킬 수 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공급이 완전히 중단될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일시적인 공급중단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석유수입국들은 석유위기에 대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많은 석유수입국에서는 1979년 당시와 견주

어서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책을 항상 강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1979년 당시만 하더라도 전략적인 비축은 거의 없었으나 현재의 전략비축수준은 3억 배럴로 총수입량의 60일분에 상당하며, 더우기 금년말까지는 4억배럴가까이까지 비축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정부비축은 1979년 11월 시점에서 3,300만배럴이었던 것이 1982년 11월에는 7,500만배럴에 이르고 있다.

유럽에서도 정부가 緊急備蓄物量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더러 있다.

1979년 당시는 이러한 석유비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가령 비축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에 비하면 미약한 물량에 불과했다.

企業들이 행하고 있는 석유비축도 아마 공급중단에 대처할 만한 물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석유값이 오를다기 보다는 保合狀態를 계속하거나, 오히려 하락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도 거의 확실시 되므로, 1982년에 볼 수 있었던 대폭적인 在庫放出이 1983년에도 잇달아 있게 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기업의 비축의무량이 대규모의 공급중단에 대처할 만한 안전수준이하로 떨어질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석유수입국 정부는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統制力 잃으면 OPEC는 弱化

石油價格動向에 대해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한가지 상황은 세계의 석유가격이 급격하게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작년도의 시장상황을 미루어 볼 때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율적인 시장조건하에서는 석유가격이 현행의 카르텔가격을 실질적으로 하회하게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OPEC가 실제로 통제력을 잃는다고 하면 공급과잉으로 생산이 억제되어 있는 산유국들이 생산코스트는 낮은 수준이라 해도 석유가격은 아마도 배럴당 20달러이하의 수준까지도 떨어질 것이다.

OPEC는 현재에도 그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으나 외부적으로는 석유시장의 힘에 의해서 또 내부적으로는

가맹국사이의 의견상치로 분명히 그 위치는 약화되어 있다.

특히 현재로서는 회원국간의 의견상충문제 쪽이 OPEC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油價의 急落은 2~3年後의 反騰招來

석유값의 급격한 下落이 왜 석유수입국에 불리한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석유값의 下落은 수입국에 대해 外貨支出節減이라는 의미에서 경제전체에 바람직한 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新에너지源의 開發, 代替에너지로의 전환 등에서 볼 수 있는 인센티브를 현저히 감퇴시키게 된다.

1979년 이후 세계 석유수요의 대세가 증가에서 감소에로 극적인 전환을 보인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큰 영향을 준 것은 물론이지만 그 主因은 석유값의 폭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현재의 석유수요감퇴와 공급증대의 관계가 급격히 逆轉될 경우, 머지 않아 석유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逆轉은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 自由市場에서는 가격수준에 따라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가령 현재 석유값이 急落했다고 하면, 아마도 2~3년안에 實質價格이 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石油은 有限한 資源이기 때문에 탐사개발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충될 수는 없는 것이다. 枯渴資源이라는 성격에 맞추어서 소비를 줄여 나가는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분명히 언젠가는 石油不足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1974년 이전, 즉 석유가 그것을 다시 보충하는데 필요한 가치 이하의 값으로 줄곧 판매되었던 시대에는 분명히 石油不足을 초래하는 방향에서 석유시장이 움직이고 있었다. 따라서 가격의 상당부분은 OPEC의 카르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밑바닥의 수급불균형에 의한 것이었다.

여기서 명확히 밝혀두고 싶은 것은 現行 OPEC가격이 적당한 가격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이다.

OPEC의 가격은 카르텔에 의한 가격이며, 인위적으로 석유의 대체에너지 전환 코스트 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변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소망스러운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공급조건하에서는 석유가격을 방치해 두면 분명히 일시적으로는 현재의 수준이하로 떨어져서 석유시장에 적신호를 보이게 될 것이다.

OPEC가 存続하려면

OPEC가 存続하기 위해 購買者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전략은 앞으로 수년동안에 걸쳐 석유의 실질가격을 代替에너지 轉換코스트 수준까지 定期的으로 서서히 인하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온건한 방식」에 의한 가격인하가 실행되면, 對外債務의 重壓에 허덕이는 석유수출국들도 借入返済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급격하고도 대폭적인 가격인하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마도 멕시코,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와 같은 석유수출국이 일부 대외채무의 불이행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 이로 인하여 여타 開途國에 대한 국제금융제도의 서어비스能力弱化로까지 과급될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은행용자가 이미 단절되어가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한 국제경제정세아래서, 이러한 사태에 직면한다면 그 영향은 매우 심각한 바가 있는 것이다.

물론 油價의 急落과 새로운 가격 양등이 세계의 석유수입국에 대해 똑같이 否定的인 效果를 초래시키게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격양등의 경우에는 전혀 마이너스의 영향밖에 없으나, 가격급락의 경우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양면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973년부터 1981년에 이르는 시대에는 '석유가격의 대폭적인 인하는 예상조차 못한 일이었으나,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석유가격이 대폭 양등할 것 이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석유값의 急落現象이 일어나면 그것은 앞으로의 油價昂騰可能性을 매우 크게 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야누스와 같이 兩面을 가진 石油世界の 不確實性을 새삼 절감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다.

OPEC의 가격통제능력 약화를 생각할 때 더욱 유의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